

Động từ và tính từ

I. Động từ động

Động từ là từ chỉ hành động, trạng thái. Động từ là từ có khả năng biến đổi để cấu thành câu. Động từ là từ có khả năng biến đổi để cấu thành câu.

Ví dụ: 봄에는 꽃이 핀다

• Phân loại động từ - Động từ động

Động từ là từ chỉ hành động, trạng thái. Động từ là từ có khả năng biến đổi để cấu thành câu. Động từ là từ có khả năng biến đổi để cấu thành câu.

(1) **Nội động từ** 자동사: Động từ chỉ hành động, trạng thái. Động từ là từ có khả năng biến đổi để cấu thành câu.

Ví dụ: 눈이 많이 온다

(2) **Ngoại động từ** 타동사: Động từ chỉ hành động, trạng thái. Động từ là từ có khả năng biến đổi để cấu thành câu.

Ví dụ: 영미는 책을 읽는다

(3) **Động từ bổ trợ** - 보조동사: Động từ chỉ hành động, trạng thái. Động từ là từ có khả năng biến đổi để cấu thành câu.

Ví dụ: 비가 많이 오고 있다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하지 않다)

영미는 동생 방을 청소해 주었다 (문장은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오다”, “청소하다”와 같은 동사를 본동사라고 한다. 본동사는 항상 보조동사 앞에 쓰인다.

II. Tính từ 활용사

형용사는 주로 성질이나 상태,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형용사는 참여자의 의미적 역할과 문장에서의 기능, 그리고 참여가의 수를 결정한다.

Ví dụ : 김치가 매우 맵다.

영희는 예쁘다

• Phân loại tính từ - 형용사의 종류

한국어 형용사에는 사람,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다른 동사 뒤에 쓰여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형용사, 그리고 “있다”와 “없다”가 있다.

(1) Tính từ chỉ đặc tính, trạng thái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Ví dụ : 이 사탕은 정말 달다 → “달다”는 “사탕”이라는 사물의 ”맛” → 감각적 의미를 나타낸다

Ví dụ : 민수는 착하다 → “착하다”는 “민수”라는 사람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평가를 나타낸다

Ví dụ : 이것은 저것과 다르다 → “다르다”는 “이것”과 “저것”이라는 두 사물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다.

이들은 모두 대상, 곧 사람과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다. 사람과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형용사를 정상형용사, 앞에서 이미 나온 말을 지시하는 형용사를 지시형용사라고 부른다.

(2) Tính từ tâm lý 심리형용사

사람과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중에는 주어가 항상 말하는 사람 자신이어서 결국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심리형용사라고 한다.

Ví dụ : 나는 슬프다.

(평사문에서 항상 일인칭 주어 (나,우리,우리들)와 만 사용된다.)

Ví dụ : 너는 철수의 합격이 매우 기뻐니?

(의문문에서 항상 이인칭 주어 (너,너희,너희들)와만 사용된다.)

평사문에서 이인칭, 삼인칭(의문문에서 일인칭,삼인칭) 주어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심리형용사의 어간 뒤에 “-아/-어하다”를 붙여 만든 동사를 사용하여야한다.

Ví dụ : 나는 (너는/그는) 철수의 합격을 기뻐했다

내가 (네가/그가) 철수의 합격을 기뻐했니?

(3) Tính từ bổ trợ - 보조형용사

형용사 중에는 다른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 쓰여 문법적은 의미를 더해 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를 보종형용사라고 한다. 보조형용사는 활용하는 모양에 따라 보조동사와 구별된다.

Ví dụ : 술을 많이 먹나봐요/본데

오늘은 춥지 않다/않는데

III. Động từ 있다/없다

“있다”와 “없다”는 활용하는 모습이 동사나 형용사와 같지 않다.

- **Khi “있다” dùng như động từ:** 명령형 종결어미“-아/-어라”나 청유형 종결어미“-자”가 쓰일 수 있고, 평사형 종결어미“-다”와 결합하지 않고 “-ㄴ/-는다”와 함께 쓰인다.
- **Khi “있다” dùng như tính từ:** 종결어미나 청유형 종결어미가 쓰일 수 없고 평사형 종결어미도 “-ㄴ/-는다” 가 아닌 “-다”와 결합하다.

Ví dụ :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있자(0) → 동사처럼 활용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말했다 → 동사처럼 활용

책이 책상 위에 있어라/있자 (x) → 형용사처럼 활용

나는 돈이 많이 있다 → 형용사처럼 활용

- Khi “있다” ở vị trí quán hình từ : “있는”의 형태로만 쓰인다.
- Khi “없다” ở vị trí quán hình từ : “없는”의 형태로 쓰인다.
- Khi ở “있다” thể hiện sự tiếp diễn của động tác hoặc hành vi, người ta không kết hợp nó với “~고 있다”; ở vị trí định từ chỉ thời quá khứ, thay vì dùng “-은” thì người ta dùng “던”. Đây được coi là đặc điểm của tính từ .

Ví dụ : 책상 위에 책이 있고 있다 (x)

책상 위에 있는 책이 없어졌다 (x)

책상 위에 있던 책이 없어졌다 (0)

IV. Động từ 이다

한국어의 “이다”는 주로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와 함께 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요소이다.

“이다”는 “명사 -이다”에서 그 앞에 오는 명사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접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다”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으므로 조사와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다”는 동사나 형용사와 달리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가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Động từ “이다” có trường hợp được sử dụng như động từ, có trường hợp được sử dụng như tính từ .**

Ví dụ : 저는 한국어과 학생 입니다/

떠날 걱정이니?

저는 hoa 이예요

Tuy nhiên, những tình huống sau cho thấy “이다” gần với tính chất của tính từ :

(1) Đuôi kết thúc câu : không dùng “-ㄴ/-는다” như động từ mà dùng “-다” như tính từ.

(2) “이다” không gắn với các đuôi mang ý nghĩa mệnh lệnh hoặc rủ ai đó cùng làm việc gì.